

## 연구논문

## 패널조사의 유용성과 문제점 : 17대 대선자료를 대상으로 \*

Availability and Problems of Panel Study:  
In Case of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이 현 우\*\*

Lee, Hyeon-Woo

이 글은 패널자료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패널자료를 사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주제를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패널자료는 동일한 응답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설문함으로써 응답자 특성을 통제된 조건에서 연구변수가 응답자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차례 설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응답자들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응답자들이 탈락한다는 점에서 모집단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자료 정보가 제공할 수 없는 패널자료만의 정보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주제에 따라서는 반드시 패널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거관심에 응답자의 투표결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TV시청 등 선거자극이 응답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관투표자에게는 TV시청 등 선거자극이 선거관심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중도기권자에게 선거자극은 선거관심을 높이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패널조사, 투표, 선거관심, 선거자극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characteristics of panel data and display the academic cases using panel data. Panel data have merit to control various variables to influence respondents' attitude and estimate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researchers are interested in by surveying the same respondents several times. However, panel data also have problems such as contaminating the respondents and reducing the number of the respondents as survey conducted several times.

In spite of a few inherent problems of panel data, informations that panel data provide are valuable and some research themes could not be possible without panel data. This

\* 이 연구는 2007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우.

E-mail: leehw@sogang.ac.kr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 in elections and voting. Electoral stimulation such as watching TV debates influences the consistent voting intended. But changing nonvoters who had voting intention but not vote are not influenced by the electoral stimulation.

**Key words** : panel survey, voting, interest in elections, electoral stimulation

## I. 서론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정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현재 모집단 구성원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실태분포가 이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한 것인지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전자에 속하는 정보가 절대적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면 후자의 정보는 상대적 가치를 포함한다. 연구주체에 따라서는 후자가 좀더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험적 분석을 위해 패널조사 자료가 매우 유용하다.

패널조사의 이론적 유용성은 오래 전부터 인지되었다. 미국에서도 1930년대 말부터 패널조사의 개념이 생겨나고 실제로 전국단위에서도 패널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발견된다(Lazarsfeld & Fiske 1938). 패널조사는 주로 경제관련 주제의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주기적 조사를 통해 경제지표들을 생산하는 사례가 많다(Duncan et al. 1984). 정치학에서 패널조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대체로 선거를 기점으로 선거 전후의 조사나 선거와 선거 사이에 몇 년 간격을 둔 선거 간 패널조사가 이루어졌다. 대다수의 선거관련 패널조사는 2회 조사에 그치고 있어 가장 기초적인 패널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정치 연구에 여론조사 방식이 도입된 것은 1987년 이후이다. 이전 선거는 군부정권 하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선거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선거가 정권교체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기 시작하면서 선거 전후 여론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선거관련 여론조사는 거의 모두가 일회성 횡단면 조사였으며 패널조사는 최근까지도 수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언론사의 재정지원 하에서 이루어지는데, 언론은 누가 선두주자인지 등 선거 판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조사인 패널조사의 의의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선거와 관련해서 패널자료의 가치를 인정하여 점차 패널방식의 조사

가 시도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SBS - 중앙일보 -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의 컨소시엄이 지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패널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이 글에서는 패널조사의 특성과 더불어 한계를 짚어 보고 실제로 서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한국의 패널조사에서도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패널자료의 가치가 아직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패널자료의 한계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 II. 이론적 검토

### 1. 패널조사의 의미

패널조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응답자에 대해 서로 다른 시점에 두 차례 이상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법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응답자들을 조사하여 집합적으로 비교하는 추세조사(trend study)와 달리 패널조사는 동일한 응답자를 반복조사하기 때문에 다른 변인들이 통제된 조건에서 종속변수의 순수변화(net change)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패널자료는 한 번의 조사(횡단면조사, cross-sectional survey)로는 파악할 수 없는 장기적 효과나 누적효과를 측정하는 데에 특히 유용하다. 외국의 경우, 영국의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나 1968년에 시작한 미국 미시간 대학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등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귀중한 정보를 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노동연구원이 1989년부터 시작한 ‘한국노동패널’과 ‘한국가구패널’ 조사(Korean Household Panel Study: KHPS)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패널조사는 특히 변화의 동인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유권자들이 왜 지지후보나 정당을 변경하는가? 정치태도 변화에 대중매체나 주변사람들의 영향력은 각각 어떠한가? 등에 대한 경험적 분석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학문적으로 일회성 조사자료에 근거한 경험분석의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패널조사 자료의 장점이다. 즉, 패널자료를 사용하면 이론에서 추론된 경쟁변수의 영향력을 측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를 증가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패널조사의 장점은 집합자료 분석을 통하여 개인의 특성을 추론할 때 발생하는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King 1997). 선거와 관련하여 이전조사와 비교하여 특정후보나 정당의 지지율 변화를 설명할 때, 많은 경우 전체변화를 통하여 개인들의 지지변화를 추론하곤 한다. 그러나 소위 언론사들의 정기조사는 지

지을 변화는 보여주지만, 내부적으로 기존의 지지자 중 누가 얼마나 떠났고, 얼마나 새로운 지지자가 진입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집합자료는 지지이탈과 새로운 지지의 상쇄된 결과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패널조사 자료를 통해서만 지지이탈자와 새로운 지지자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패널조사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에 대한 연구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패널자료에 대한 우려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수차례에 걸쳐 답변을 해야 하는 응답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일단 응답자들을 충원한다 해도 조사차수가 지남에 따라 응답자유지 비율이 부담요인이다. 패널연구의 특징이 동일한 응답자들을 다른 시점에 조사하는 것인데 응답자 집단의 수가 점점 작아진다면 그 장점은 사라지는 것이 된다. 결국 패널조사에 관한 많은 우려는 응답자 유지율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된 패널연구의 또다른 한계는 혼재된 변수들의 통제가 어려워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패널자료는 연구자들의 인과관계 연구에 유용한 것은 사실이다. 인과관계는 시간적 순서, 두 변수 사이의 공변(covariation) 그리고 다른 인과관계의 배제 혹은, 검토라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패널조사에서는 변수들이 수차례 측정되기 때문에 일회조사 자료에 비해 인과적 추론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패널조사에서 강점이 되는 인과관계 검증요인은 시간순서와 공변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만일 탈락률이 높다면 남아 있는 응답자의 고유한 특성만으로 인과관계를 추론케 할 가능성도 있다. 즉 대표성이 상실된 자료분석을 통한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수차례 인터뷰를 하게 됨으로써 응답자들이 첫 조사와는 다른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뷰 경험이 응답자들로 하여금 정치에 더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가장 빈번한 예로 선거관련 패널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선거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투표율도 모집단 전체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현상이 발생한다. 최초로 패널을 구성할 때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특성을 가진 응답자들을 선발하였지만 반복되는 패널조사가 응답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선거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만일 이러한 효과가 심각하다면 패널조사는 반복될수록 응답자들의 대표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 온다. 또한 패널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조사에서 동일한 질문문항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연속적인 조사과정에서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개념이나 질문사항이 필요하다 해도 새로이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약하면 패널조사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높은 응답율의 유지와 응답자들의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 유지라는 조건을 얼마나 만족시키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2. 패널조사 평가

### 1) 긍정적 측면

여론조사 영역에서 패널조사 기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라자스펠드와 피스크(Lazarsfeld & Fiske 1938)이다. 그들은 패널조사가 필요한 것은 1) 자세한 응답을 얻기 위해, 2) 응답자들의 특성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기 위해, 3) 반복조사를 통해 통계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4) 특정한 사건의 효과를 사건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비교하여 알고자 할 때, 5) 통제집단을 대신하기 위해 반복조사로 비교가 가능할 때이며, 패널자료는 이러한 조건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처음 패널조사의 개념을 도입한 지 2년 후 다른 논문에서 라자스펠드(Lazarsfeld 1940)는 패널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집합자료로는 말할 수 없는, 상쇄되는 변화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통계적 의미에서 패널조사의 장점을 잘 부각시켰다. 또한 패널조사의 특성상 일회성 조사와 같이 큰 규모의 샘플이 없이도 통계적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힐 수 있다. 그런 특성은 재조사의 어려움의 문제를 약간 완화시켜 준다고도 할 수 있다.

패널조사는 여러 시점에서 동일한 응답자들을 조사하는 방법이므로,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된 그러나 동일하지 않은 샘플을 여러차례 조사하는 반복조사(repeated survey)와 다르다. 패널조사는 그 목적에 따라 조사회수와 전체조사 시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시장조사에서는 날마다 사용하는 물건에 대한 평가를 매주 단위로 조사할 수도 있지만 연소득과 같이 매년 조사하는 경우 수십 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표 1>은 패널조사와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차별적인 조사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패널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분석 가능성이며, 특히 개인변화의 총량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의 측정에 가장 적합하다. 또한 장기간 개인에 대한 집합자료를 축적하는 것도 가능하다. 패널조사에 포함되는 질문항들은 지속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필요한 주제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일회성 조사들의 단순한 집합에 비해 체계적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반복조사와 비교할 때 시점 개념이 포함된 정보제공이 이루어진다. 좀더 설명하면 반복조사의 경우 2차 조사라 해도 모두가 혹은 대다수가 첫 응답자이기 때문에 이전의 경험만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패널조사는 동일응답자에 대한 누적질문 및 자료이므로 경험여부에 대한 정보는 그 시기별로 구분되어 자료로 활용된다. 더욱이 이전조사에서 미흡했던 것이 발견되면, 계속 연락이 가능하므로 보완하는 것도 가능하다.

〈표 1〉 조사방식의 유형과 특징

이름	조사방식
반복조사 (repeated survey)	동일한 모집단을 수차례 조사하지만 추출한 표본을 동일하게 유지하려 노력하지 않음. 때로는 표본들이 두 번 이상 추출되지 않도록 하여 응답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대표성을 방지하려 함.
패널조사 (panel survey)	동일한 응답자를 수차례 조사함. 조사간격은 조사목적에 따라 다양함.
순환패널조사 (rotating panel study)	응답자들의 조사회수가 제한되어 있음. 제한된 조사회수가 지나면 그 집단의 응답자들은 새로운 응답자들로 대체됨. 패널조사의 편향성이나 응답자 유지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됨.
분할패널조사 (split panel survey)	위의 3가지 조사방식을 혼합한 방식. 패널조사의 순수변화 측정, 반복조사에서 새로 진입한 응답자의 영향력 측정 그리고 패널조사의 편향성 억제.

\* Menard(1991) ch. 3 요약

순변화의 측정이 반복조사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측정하는  $t_1$ 과  $t_2$ 의 시점에서 평균이 각각  $y_1$ 과  $y_2$ 라고 하면, 변화의 분산은  $V(y_1 - y_2) = V(y_1) + V(y_2) - 2\rho[V(y_1)V(y_2)]^{1/2}$  이 된다. 여기서  $\rho$ 는  $y_1$ 과  $y_2$ 의 상관계수이다. 반복조사에서  $\rho$ 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표본이므로 0의 값이 되지만 패널조사에서는 서로 다른 시점의 동일한 개인의  $y$  값 사이의 관계이므로  $\rho$ 는 상당히 높은 값을 갖는다. 따라서 패널조사에서 측정된 변화값이 훨씬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Duncan 1987; 102-3).<sup>1)</sup>

## 2) 부정적 측면

위에서 지적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패널조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패널자료의 제약성은 역설적으로 장점과도 깊이 연관된 것들이다. 패널조사가 갖는 차별적인 방법으로서 반복조사에 따른 응답자의 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패널조사에 비판적인 주장에 따르면 패널조사에 참여의사를 밝힌 응답자들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일회성 여론조사의 응답자들도 완벽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응답의 부담이 패널조사 응답자들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 수준에서는 패널 응답자들에게 있어서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1) 엄격히 따져보면 반복조사와 패널조사에서 측정된 변화량은 그 의미가 각각 다르다. 전자의 경우 변화는 값의 변화와 모집단 구성의 변화를 모두 포함할 수 있지만, 후자는 새로운 응답자 층원이 없었다면 값의 변화만을 반영한 것이다.

더욱이 패널조사와 횡단면 조사에서의 응답구조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그들이 이미 경험한 것에 대한 반응이나 평가를 측정한다. 즉 외부로부터 정보를 처리할 당시에 응답자들은 아무런 외부적 영향 없이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이 조건이 정보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장 자연스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설문에 응답할 때에는 자연적 상태의 경험과 기억을 이용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배심원(jury)의 경우, 이미 그들은 정보를 얻고 처리한 후에 질문받을 것을 예상하고 행동하고 반응한다. 마찬가지로 패널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새로운 정보가 차기 설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때로는 이미 응답한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태도경직 현상(freezing of the attitudes)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차후 설문을 예상하는 응답자들의 새로운 정보에 대한 관심과 판단이 자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패널자료를 통해서는 그러한 설문조사 구조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밝혀내기 어렵다.

패널조사의 유용성은 장기간 나타나는 시간경과에 따른 누적변화(cumulative change)의 측정에 나타난다. 그러나 동일한 설문에 반복적으로 답변하는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변화를 받아들이는지 여부가 패널조사에서 중요한 논쟁거리이다. 일부 학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패널조사는 변화추세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sup>2)</sup>

패널조사의 가장 큰 부담은 탈락률(mortality)이다. 1938년 뉴욕의 주지사 선거에서 선거 전후 패널조사의 응답자 유지비율이 전형적 사례가 된다. 첫 번째 조사에서 331명을 조사했는데 차기 조사에서 42명이 응답거부를 했고 나머지 이름과 주소가 있는 289명 가운데 109명은 재조사가 불가능했다. 결국 가장 단순한 형태인 단 두 번 조사의 패널방식에서 54%의 응답률을 유지하였을 뿐이었다.

패널조사의 문제점 중 모집단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게 된다. 그것은 패널유지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집단에 새로운 구성원이 생기는 등의 요인으로 인한 모집단 구성 특성의 변화이다. 최근 조사를 바탕으로 횡단면적으로 모집단을 추정할 때와 시계열적으로 모집단의 평균을 측정할 때 모두 패널자료는 이러한 우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여러 번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응답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가도 논의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응답자가 자신의 의견을 정하였는가 혹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얻어가면서 의사를

2) 그러나 이 주제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그러한 속성을 보이는 응답자가 일부분이고 다수는 변화를 인정하기 때문에 패널조사가 변화를 완벽하게 측정하지는 못하지만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결정하는가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조사에 따라 달라질 것인지 혹은 조사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려할 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패널조사 자료가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동일인에 대한 반복적 조사는 일회조사나 반복조사에는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응답자들의 비협조로 인해 차기 조사에서 제외된 응답자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차기조사에 응하지 않은 응답자들 자료는 이전조사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패널조사의 관건은 응답자 유지비율을 얼마나 높게 유지시키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sup>3)</sup> 패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응답자들에게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연구의 가치를 인식시켜 주는 것은 유지비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많다.

시간이 지날수록 패널관리는 어려워진다. 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패널의 기준을 응답자가 아니라 특정주소지로 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미국처럼 1년 이내에 20%의 인구가 주소지를 바꾸는 조건 속에서 패널유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패널자료라기보다는 반복조사 자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패널유지의 어려움도 있지만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패널 조사에서는 조사가 반복될수록 편향성이 적어지게 된다. 반복적 접근을 통해 응답자들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보다 정확한 응답을 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Carnell et al. 1981). 패널조사는 응답자들에게 지난번 조사의 결과를 제공하고 그 정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흥미로운지를 보여 줌으로써 응답자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

반면에 패널조사는 응답자들의 정확한 투표행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답자들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만일 패널조사로 인해 응답자들의 투표의사가 증가하였다면 과연 이 응답자들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가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노력을 기울이면 패널유지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어차피 적은 숫자일지라도 탈락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조사가 지속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누진적 탈락 응답자 수는 늘어가고 전체로 볼 때 상당한 수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혹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무응답의 편향성이 우려된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횡단면적 분석과 마찬가지로 무응답자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패널조사에서 두 번째 조사 이후로는 무응답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이번 조사에서 무응답자들은 이전조사까

3) 미국 디트로이트 주변 여성들에 대한 패널조사가 15년 동안 5번 이루어졌는데, 패널유지율이 무려 89%나 되었다.



지는 응답을 한 사례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무응답자 특성과 편향성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며, 그들의 편향성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금번 조사에서 응답자와 무응답자를 구분하고 이전까지의 설문응답에서 이 두 집단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비교하는 방식이 무응답자 특성을 찾아내는 첫 번째 분석작업이 된다.

### III. 패널자료 평가; 17대 대통령선거자료

#### 1. 자료소개

앞에서 패널조사와 관련된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위의 주장 중 검증가능하고 중요한 몇 가지 논의를 17대 대선기간 동안 수행한 패널조사를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앞의 논의가 주로 외국의 사례에서 발견된 것인데, 이러한 주장이 한국의 패널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가를 검토하도록 한다.

SBS - 중앙일보 -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컨소시엄 패널조사의 조사절차는 김춘석·박종선(2008)의 글에 자세히 설명되었다. 간단히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조사표본과 패널유지율은 <표 2>와 같다.

표본설계 단계에서 고려한 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였다. 첫째, 최종 유효표본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 둘째, 최소 패널유지율을 몇%로 설정할 것인가? 셋째, 도중 탈락 후 참여자도 해당 차수의 유효표본으로 간주할 것인가? 6차 조사 때 최종 응답자 2,100명의 유효표본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첫 조사 응답자의 60%가 최종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최초 응답패널은 3,500명이어야 한다. 패널관리는 도중에 한 번이라도 불참한 패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표 2> 패널조사 시기와 패널유지율

조사차수	조사표본	패널유지율
1차 조사(4. 25)	3,503명	-
2차 조사(8. 10)	2,911명	83.1%
3차 조사(10. 17)	2,524명	72.1%
4차 조사(11. 25)	2,382명	68.0%
5차 조사(12. 11)	2,208명	63.0%
6차 조사(12. 20)	2,111명	60.3%

이번 표본구성의 특징 중 하나는 무작위 추출을 통한 응답자와 한국리서치가 관리하는 마스터 샘플을 혼용하여 사용했다는 것이다.<sup>4)</sup> 비율은 마스터 샘플이 51%이고 무작위표본 추출에 의한 일반 모집응답자는 49%였다. 결과적으로 마스터 샘플의 유지율은 73%에 이르렀지만 무작위 추출로 구축한 패널의 유지비율은 47%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무작위 추출 패널의 1차 탈락율이 무려 26%에 달하였다.

패널유지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위해 응답유지자 집단과 응답탈락자 집단을 구분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응답탈락자를 2차와 3차 조사에서 응답을 하지 않는 참가자들로 규정하였다. 2차 조사의 탈락자들은 1차 조사에서 모집단 특성 중 지역/연령/성별을 기준으로 선발한 참가자 중에서 2차 조사에서 비협조를 한 사람들이다. 탈락자들과 유지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2차 조사에서의 탈락자들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 줄 것이다. 1차와 2차 조사 사이에 3개월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났고 일반적으로 탈락률이 2차 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높은 탈락률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3차 조사까지 탈락자는 27.9%인 979명이고 유지자는 72.1%인 2,524명이었다.

## 2. 응답유지자와 탈락자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가?

만일 유지자와 탈락자 두 집단의 특성이 뚜렷이 다르다면 유지자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회의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정치성향적 특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유지자와 탈락자는 이전 조사에서는 모두 응답자들이었으며, 조사차수가 지날수록 유지자의 비율은 낮아진다. 따라서 두 집단의 특성이 다르다면 조사가 진행될수록 유지자 집단의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은 낮아지는 것이다.

〈표 3〉을 보면 유지자와 탈락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가 남자보다 탈락자 비율이 높다. 그렇다면 처음 응답자들을 추출했을 때 모집단 비율에 따라 추출한 남녀비율이 지켜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첫 패널응답자 구성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49.2%, 50.8%이었지만, 3차 조사에서는 남성이 50.7%, 여성이 49.3%로 여성의 비율이 1.5%p 줄어들었다. 마찬가지로 연령분포에서도 유지자와 탈락자 사이에 편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0대와 60세 이상에서 탈락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따라서 20대의 비율은 처음의

4) 마스터 샘플은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사전에 표명한 11만명 규모의 응답자 집단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응답유지율이 무작위 추출집단보다 26%p 높았다. 그러나 이 두 표본사이의 정치적 행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춘석·박종선(2008) 참조.

〈표 3〉 유지자와 탈락자의 인구통계적 분포비교

(단위: %)

		탈락자	유지자	$\chi^2$
성 별	남 자	25.8	74.2	p<.00
	여 자	30.0	70.0	
연 령	19~29세	30.9	69.1	p<.00
	30~39세	25.5	74.5	
	40~49세	24.5	75.5	
	50~59세	28.7	71.3	
	60세 이상	31.5	68.5	
학 력	중졸 이하	44.4	55.6	p<.00
	고졸	27.7	72.3	
	대재 이상	24.4	75.6	
소 득	100 만원 미만	40.6	59.4	p<.00
	100~199 만원	31.7	68.3	
	200~299 만원	27.2	72.8	
	300~399 만원	25.1	74.9	
	400 만원 이상	23.3	76.7	
	모름 / 무응답	52.3	47.7	
도시규모	대도시	25.8	74.2	p<.00
	중소도시	29.5	70.5	
	군지역	32.2	67.8	
전 체		27.9	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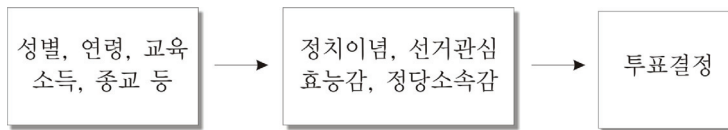
21.7%에서 20.8%로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학력에서는 낮은 학력자의 탈락률이 높고, 소득에서는 저소득층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규모에서도 군지역의 대표성이 낮아진다.

요약하면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해 탈락자 집단과 유지자 집단을 비교해 본 결과 패널조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조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미국의 패널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연령이나 학력 등의 분포변화는 투표자들의 특성과 일치하는 현상을 보인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투표율이 낮은 것은 미국선거의 일반적 현상인데, 동일한 현상이 패널응답자 분포에서도 나타난다.

5) 유사한 주제로 다른 패널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허명희 외 2009).

설문조사를 위해 표본추출을 할 때 조사의 목적이 알려진 모집단의 정보를 이용하여 가급적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집단을 추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패널조사에서 시간이 지나고 조사회수가 늘어갈수록 탈락자들이 늘어나고 탈락자들이 일정한 특성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에 치중된다면 대표성을 우려하게 된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기술하면 설문조사의 목적에 따라 대표성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선거조사에서는 전국유권자들의 정치성향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가장 극단적으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들 중 어떤 요인들이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표본이 그러한 요인의 분포와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면 이들 요인들이 직접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성향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를 갖는다.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이 연구의 목적을 감안할 때 유지자와 탈락자 사이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치성향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는 응답유지와 탈락이 정치성향과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이념을 기준으로 보면 중도성향 응답자들의 탈락률이 진보나 보수성향의 응답자들의 탈락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가 정치적 이념이 강할수록 정치적인 지지가 뚜렷하고 투표를 포함한 정치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선호하거나 혐오하는 정당이 있을 가능성도 높으며, 그 정도도 중도의 응답자들보다 강하다. 따라서 정치이념을 가진 응답자들이 중립의 응답자들보다 응답유지율이 높은 것은 타당하다.

선거관심 변수도 같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패널조사가 응답자들의 선거관심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응답자 본래의 속성으로 볼 때 선거관심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응답유지율이 높은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투표의사를 보면 유지자 집단의 경우 76.8%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데 비해, 탈락자 집단에서는 68.6%에 그쳐 6.2%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거관심 역시도 탈락자 집단과 유지자 집단 사이에 10%p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정치학회가 선거 직후 실시한 조사에서도 기권자와 투표자의 선거관심에 따라 약 34%p의 투표율 차이를 보였다.

〈표 4〉 유지자와 탈락자의 정치성향 분포비교

		탈락자	유지자	
이념	진보	25.9	30.9	p<.00
	중도	45.4	39.8	
	보수	26.4	28.9	
선거관심	관심 있음	71.5	81.3	p<.00
	관심 없음	28.2	18.7	
투표의사	반드시 투표	68.6	76.8	p<.00
	아마 투표	20.2	18.8	
	투표 안함	4.3	0.6	
	아직결정못함	6.8	3.7	
국정평가	긍정평가	34.5	32.3	p<.01
	부정평가	64.1	67.3	
지지정당	한나라당	46.8	47.7	p<.01
	열린우리당	11.0	12.1	
	민주당	5.2	4.9	
	민주노동당	6.4	7.5	
	통합신당모임	4.4	4.6	
	지지정당없음	24.5	22.9	
16대대선	이회창	33.0	37.4	p<.00
	노무현	49.4	750.6	
전체		27.9	79.1	

한편, 노무현 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집단인지 부정적으로 평가한 집단인지에 따라 탈락률의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지정당에 따른 탈락률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투표결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지지정당인데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에 따라 탈락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패널구성이 투표결정에 관한한 모집단 추정에 상당한 대표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지난 16대 대선에서 이회창과 노무현 두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들을 기준으로 보아도 두 지지자들 사이에 탈락률의 차이가 미미하다. 유권자들의 다수가 이전 선거와 동일한 정당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를 고려하면 정치성향에 있어 유지자와 탈락자 사이에 심각한 비대칭 성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분석하면 연령, 학력, 소득 등에 따라 탈락률이 다르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치적 세련도가 높을수록 유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변수들은 정치성향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치

성향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이념, 선거관심, 지지정당 등의 요인들과 응답유지율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구통계 변수에서만 정치성향 변수에서의 편향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패널조사에서 탈락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표본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3. 패널조사가 응답자를 자극하는가?

패널조사에 회의적 시각을 보이는 연구자들이 빈번히 지적하는 패널조사의 문제는 반복적인 조사과정에서 응답자들이 오염(contamination)된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조사응답을 한 이후 선거관련 정보에 대해 민감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전 조사에서 자신이 응답한 의견에 따라 현재의 의견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이현우 2008).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가 투표율에 관한 것이다. 패널조사 응답자들의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들의 투표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수차례 반복되는 조사응답과정에서 정치참여를 자극받게 되고 그것이 투표행위로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이 타당성을 갖는지는 결국 정제화된 리서치 디자인에 의해 경험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초적 수준에서 패널응답자들이 조사응답과정에서 선거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선거가 가까울수록 유권자들에게 선거정보와 자극이 많아지고 따라서 선거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다. 따라서 이번 패널조사에서 조사차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거관심이 높아진다는 추세를 패널조사의 효과라고 할 수는 없다. 엄밀히 말하면 선거관심의 추세의 기울기에 패널응답 경험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패널조사 시기에 대응하여 다른 횡단면 조사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자료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선거 후 3개의 서로 다른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패널조사의 영향력을 파악하려 한다.<sup>6)</sup> 따라서 패널조사 자료도 선거 후 조사한 6차 조사자료를 사용한다.

이러한 비교전략은 다른 두 개의 설문자료에 참가한 응답자들은 이전에 체계적인 선거설문에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따라서 선거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인위적인 외부영향이 없이 형성되었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들 두 자료에서 분석한 응답자들과 패널자료 응답자들의 정치태도를 비교하여, 예상한 바와 같이 패널응답자들이 정치에 더 민감한지를 분석한다.

6) 다른 2개의 조사는 선거 직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에서 수행한 전화설문과 한국정치학회가 선거 직후 면접으로 실시한 설문이다.

〈표 5〉 설문조사 투표율 비교

(단위: %)

실질투표율	패널조사	정치학회	현대정치연구소
63	92.1	78.5	89.6

〈표 6〉 한국선거학회 설문조사와 실제 투표율

(단위: %)

년 도	총 선				대 선			
	1992	1996	2000	2004	1992	1997	2002	2007
실제투표율	71.9	63.9	57.2	60.6	81.9	80.7	70.8	63.0
설문투표율	86	81.2	74.7	78.3	93.4	92.5	88.4	78.5
차 이	14.1	17.3	17.5	17.7	11.5	11.8	17.6	15.5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투표율은 항상 실제투표율보다 높다. 응답자들이 투표를 시민적 의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거짓응답을 하기 때문이다(Abelson et al. 1992; Clausen 1968; Traugott & Katosh 1979). 〈표 5〉를 통해 비교해 본 결과, 투표율에서는 패널조사가 실제 선거결과와 가장 많은 차이를 보여 약 30%p에 가까운 투표율의 과장현상(over-reporting)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정치학회 조사는 15.5%p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동안 한국선거학회가 수행한 동일한 면접조사에서 투표율 차이가 15%p 내외였던 것을 생각하면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그에 비하여 패널조사의 차이는 두 배가 넘었다.<sup>7)</sup>

설문조사에서 투표율은 설문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또 한 가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요후보들에 대한 지지분포이다. 선거관련 연구주제 중에는 전체투표율이 얼마나 되는가, 누가 투표를 했는가 등보다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이 왜 유권자들은 특정후보를 선택하였는가 하는 투표선택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각 후보의 득표율이라는 집합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당연히 설문을 통한 개인수준의 자료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설문결과 각 후보가 득표한 비율이 후보들의 실질득표율과 일치할수록 바람직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표 7〉은 이번 17대 대선 이후 여러 기관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이다.

7)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은 51.6%였는데, 동일한 기관들이 실시한 패널조사에서의 투표율은 88.7%로 조사되어 이번 패널조사와 마찬가지로 큰 차이를 보였다.

〈표 7〉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후보별 득표율

(단위: %)

조사기관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선거결과	48.7	26.1	15.1
패널조사	54.4	22.0	11.0
정치학회	57.3	20.4	10.1
현대정치연구소	58.7	14.4	10.4

앞의 투표율 측정에서와 달리 후보별 득표율은 패널조사 자료가 가장 실제 득표율들과 가까운 값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 후 조사에서는 승자에게 지지가 과장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실 모든 조사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작게는 5.7%p에서 크게는 10%p까지 나타난다. 그 중 패널자료가 가장 근접한 값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정동영 후보와 이회창 후보 지지율 분포를 보아도 다른 조사결과들보다 실제 값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낸다. 후보들의 실제득표율과 근접하다는 것이 설문자료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설문에서 나타난 후보자별 득표분포가 실제 선거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패널자료는 신뢰도 검토의 한 부분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 4. 패널조사만의 정보: 투표의사와 투표여부

투표율 저하 문제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13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75.8%에 달했으나 18대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46.1%로 나타나 전체유권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선거에서도 투표율 감소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지난 17대 대선의 투표율은 63%로 13대 대선의 89.1%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와 정치학자들은 투표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투표율 연구는 본질적으로 투표자 개인에 대한 연구이므로 당연히 개인수준의 자료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또한 투표율 개선 등에 관한 연구라면 더욱이 투표의사에 자극을 주는 요인파악이 중요하므로 패널자료를 통한 인과적 분석이 필요하다. 아래의 사례는 패널자료가 일회성 설문자료에 비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가를 보여 준다.



〈표 8〉 집합자료와 패널자료에서 나타난 투표여부\*

(단위: %)

		투표	기권
집합자료	투표의사	99.4	0.6
	투표여부	93.2	6.8
패널자료**	투표예정	92.8	6.5
	기권예정	0.3	0.3

\* 투표미결정자가 3.7%였으나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 생략함.

\*\* 패널자료에서 각 셀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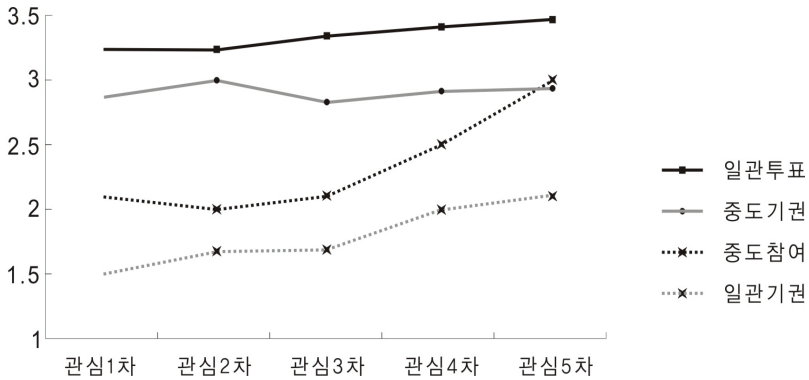
〈표 9〉 투표의사와 투표여부에 따른 유권자 분류

(단위: %, 명)

투표자		기권자	
투표유형	전체비율	기권유형	전체비율
일관투표	92.8(1861)	중도기권	6.5(131)
중도참여	0.3(7)	일관기권	0.3(6)

〈표 8〉은 앞에서 소개한 패널자료의 1차 설문과 6차 설문을 이용하여 투표여부에 관련된 빈도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집합자료로만 활용한다면 1차 설문 당시 투표의사를 밝혔던 응답자들이 99.4%이고, 6차 설문에서 실제로 투표한 응답자는 93.2%이므로 6.2%p의 차이가 난다는 것 이상을 추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표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투표의사를 가진 응답자 중 최소한 6.2%가 기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패널자료를 통해 1차 설문자료와 6차 설문자료를 교차한 결과를 보면, 투표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투표한 응답자가 93.2%이고 애초부터 투표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기권한 응답자 비율은 0.3%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발견은 투표의사를 가졌던 응답자 중에도 중도에 기권을 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표 8〉에 근거하여 투표의사와 투표여부에 따라 유권자 집단을 유형화해 보면 〈표 9〉와 같이 4개의 집단으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일관적 투표자와 일관적 기권자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선거기간동안 투표의사를 변경한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비율이 6.8%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집단은 중도기권자들이다. 이들은 초기에는 투표의사가 있었지만 중간에 투표의사를 철회한 집단이며, 특히 이들의 비율이 6.5%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는 기권의사를 가지고 있다가 투표에 참여한 중도



〈그림 1〉 투표유형에 따른 선거관심도

참여자의 비율이 겨우 0.3%에 머무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비율이 된다. 이 같은 유형화 작업 및 경험적 분석은 집합자료는 물론이고 일회성 설문자료가 누적되어 있어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유권자들은 투표의사가 투표행위로 연결되는 데 비해 또다른 유권자들은 중도에 기권을 하게 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투표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거관심이라는 것이다(Campbell 1960; Winders 1999; Conway 1991).

위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관심이 투표유형 분류별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관투표자들의 경우 선거관심이 다른 집단보다 항상 높았던 반면, 일관기권자들의 선거관심은 가장 낮았다. 한편 중도기권자들의 선거관심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별로 증가하지 않은 반면에, 중도참여자 집단의 선거관심은 3차 설문조사 시기부터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선거관심이 투표의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패널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경험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처음부터 일관투표자와 중도기권자 사이에 선거관심의 정도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진다는 점이다. 즉 초기의 선거관심 못지않게 선거기간 동안 선거자극이 두 집단 사이에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표 10〉 선거관심 회귀분석(중도기권자, 일관투표자)

	중도기권자				일관투표자			
	B	S.E.	Beta	t	B	S.E.	Beta	t
절 편	0.22	0.83		0.27	0.93*	0.15		6.34
성 별	0.09	0.14	0.06	0.64	0.01	0.03	0.01	0.21
연 령	-0.04	0.07	-0.06	-0.56	0.01	0.01	0.02	0.83
학 력	-0.05	0.18	-0.03	-0.26	0.06*	0.03	0.06	2.19
소 득	0.04	0.05	0.08	0.84	0.00	0.01	0.00	-0.08
TV토론	0.06	0.10	0.06	0.60	0.12*	0.02	0.16	5.98
선거관심4차	0.71*	0.11	0.68	6.68	0.55*	0.03	0.58	20.93
정당여부	0.09	0.14	0.06	0.64	0.12*	0.04	0.08	3.25
정부책임	0.12	0.08	0.15	1.56	0.01	0.02	0.02	0.69
	R-square 0.50				R-square 0.46			

기존의 설문자료 분석을 통한 투표율 연구들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연구들이 유권자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연령, 교육, 소득 등)이 투표여부에 중요한 변수라고 간주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선거기간 동안 집단별로 선거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차별성이 없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도기권자 집단에서는 선거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거관심과 관련된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 정도가 일관투표자와 중도기권자에게 다르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0〉은 중도기권자와 일관투표자를 구분하여 이들 집단의 선거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영향력을 비교해 본 것이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선 당연하게 이전의 선거관심이 현재의 선거관심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TV토론 시청정도가 두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즉, 일관투표자들 사이에서는 TV토론을 시청한 정도에 따라 선거관심이 달라져서, TV토론 정보의 자극을 받을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반면에 중도기권자들 사이에서는 TV토론 시청정도가 선거관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선거정보의 자극이 선거관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국가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선거기간 동안에 제공되는 정보가 모든 유권자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별 특성에 따라서 투표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Hillygus 2005; Glaser 1958).

## IV.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패널조사 자료가 반복조사의 집합자료와 그 의미가 다르며, 특히 선거연구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정치변동을 연구하는 데 적실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패널조사의 높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용되지 못했던 것은 조사자금의 조달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자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글이 사용한 패널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패널조사 자체가 응답자들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실제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보다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투표선택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조사들보다도 실제투표율에 더 근접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패널조사를 통해 응답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선거관심을 높이는 부분에서는 나타나지만, 중립적 질문들을 통한 반복적 설문은 후보자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제 17대 대통령선거 패널조사자료를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의사와 투표여부에 대한 세부적 분석을 시도하여 유권자의 투표의사 변화가 집단별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패널조사 자료는 단순히 집합자료보다 세분화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자료 분석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검증할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패널자료 정보는 단순히 집합자료 정보의 확대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학 분야 등에서 기존의 패널연구들이 세대를 가로질러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이루어진 데 비하여, 정치학 분야에서는 거의 관심 밖의 조사였다. 오히려 패널조사의 필요성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집합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투표행태 추정이 비판없이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연구 중 투표행태 연구는 결국 개별 투표자들이 연구단위가 되므로 집합자료를 통해서서는 횡단면적 분석 이외에 투표변동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 패널자료 구축이 일회성 조사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과 관리를 필요로 하지만,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춘석·박종선, 2008. “제 17대 대통령 패널조사의 방법과 운용.” 이현우·권혁용 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서 본 2007년 대선》, 서울: 동아시아 연구원.

- 이현우. 2008. "진심투표와 전략투표" 이현우·권혁용 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서 본 2007년 대선》. 서울: 동아시아 연구원.
- 허명희·김지연·이양훈. 2009. "패널이탈과 조건화의 영향: KBS-MBMR의 2007년 대통령 선거 패널 조사 사례," 《조사연구》 10(1): 73-89.
- Abelson, Robert P., Elizabeth F. Loftus, and Anthony G. Greenwald. 1992. "Attempts to Improve the Accuracy of Self-Reports of Voting." in *Questions about Questions*, Judith M. Tanur ed. pp. 138-53.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mpbell, Angus. 1960. "Surge and Decline: A Study of Electoral Change." *Public Opinion Quarterly* 24(3): 397-418.
- Cannell, C. F., P. V. Miler, and L. Oksenberg. 1981. "Research on Interviewing Techniques."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CA: Jossey-Bass.
- Clausen, Aage. 1968. "Response Validity: Vote Report." *Public Opinion Quarterly* 32: 588-606.
- Conway, Margaret M. 1991. *Political Participation in United States*. Washington DC: A Division of Congressional Quarterly.
- Duncan, Greg J. 1987. "Issues of Design and Analysis of Surveys across Time." *International Statistical Review* 55(1): 97-117.
- Duncan, G., Juster F. T., and Morgan J. N. 1984. "The Role of Panel Studies in a World of Scarce Resources," in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Economic and Consumer Behavior Data*. S. Sudman and M. A. Spaech(eds.). IL: Bureau of Economic and Business Research.
- Glaser, William A. 1958. "Intention and Voting Turnou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2(4): 1030-1040.
- Hillygus, D. Sunshine. 2005. "Campaign Effects and the Dynamics of Turnout Intention in Election 2000." *The Journal of Politics* 67(1): 50-68.
- King, Garry. 1997. *A Solution to the Ecological Inference Proble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 Lazarsfeld, Paul F. 1940. "'Panel' Studies." *Public Opinion Quarterly* 4(1): 122-128.
- Lazarsfeld, Paul F. and Marjorie Fiske. 1938. "The 'Panel' as a New Tool for Measuring Opi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2(4): 596-612.
- Menard, Scott. 1991. *Longitudinal Research*. CA: Sage Publications.
- Traugott, Michael W., and John P. Katosh. 1979. "Response Validity in Survey of Voting Behavior." *Public Opinion Quarterly* 43(3): 359-377.
- Winders, Bill. 1999. "The Roller Coaster of Class Conflict: Class Segments, Mass Mobilization, and Voter Turnout in the U.S., 1840-1996." *Social force* 77(3): 833-860.